



청보리밭 봄햇살

호남지역 낮 최고기온이 15도까지 오르는 등 봄기운이 완연하다. 20일 오후 전북 고창군 공음면 학원농장에 새순을 드러낸 청보리들이 봄 햇살을 머금고 있다. /고창=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부산저축銀 3곳·보해저축銀도 영업정지

### 보해 임건우 회장 “5천만원 이상도 보호”

부산저축은행 계열의 저축은행 3곳과 보해저축은행이 추가로 영업정지 조치를 당했다. <관련기사 9면> 금융위원회는 19일 임시회의를 열고 최근 예금인출 사태로 유동성 위기를 겪었던 부산2, 중앙부산, 전주 및 보해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부산저축은행 계열 3곳과 보해저축은행은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의 만기연장 등을 제외한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당초 부산저축은행 계열 3곳은

지난 17일 부산과 대전저축은행의 부실금융기관 결정 과정에서 함께 영업정지가 검토됐지만, 유동성이 부산과 대전저축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점이 감안돼 제외됐다. 그러나 계열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이후 예금자의 불안감 확산에 따른 예금인출 사태가 지속되면서 추가로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지난 17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도기준인 5%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 공개된

보해저축은행도 예금인출 사태 때문에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날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결정이 알려지자 목포시 무안동 보해저축은행 본점에는 예금자들이 몰려와 거세게 항의했다. 예금자들은 특히 “은행 측이 지난 18일 ‘금융감독위원회가 영업정지 결정을 내리지 않을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해 예금인출을 안했는데 갑작스럽게 영업정지됐다”며 정부 당국과 은행 측에 분통을 터뜨렸다.

한 예금자는 “공무원 퇴직금 2억원을 맡겨놨는데 어제부터 영업정지 소문이 있어 예금을 찾으려고 했지만 은행 측이 영업정지 결정이 없을 것이라 고 해 돌아왔다”며 “이자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굶어 죽게 생겼다”고 말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부산계열 저축은행 3곳과 보해저축은행의 예금자에 대한 선 1인당 원리금 기준으로 5000만원 이하의 예금은 전액 보호된다. 특히 보해저축은행의 경우 대주주인 보해양조 임건우 회장이 19일 “(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해주는) 5000만원 초과분 예금주까지 보호하겠

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종득 목포시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임건우 회장과 협의한 결과, 빠른 시일 내에 유상증자를 통해 BIS 비율 5% 이상을 달성하고, 최악의 경우 우리도 5000만원 초과예금주(1610건, 288억5000만원)에 대해 모 회사인 보해양조 및 전 계열사가 모두 책임지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이날 목포가 지역구인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긴급대책 회의를 가진데 이어 21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해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한 종합대책을 김중창 금융감독원장, 김석중 금융위원장과 협의를 통해 보해저축은행을 정상화하기로 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금융위는 예금을 찾지 못하는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와 협의를 거쳐 다음달 4일부터 1500만원을 한도로 가처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

#### 휘어지는 반도체 개발

##### 광주과학기술원 연구팀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진이 플라스틱 기반 위에 반도체 물질을 안정적으로 인쇄하는 기술을 개발, 마음대로 구부릴 수 있는 태양 전지, 광학센서 등의 상용화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고흥조 교수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0일 광주과학기술원(GIST) 고흥조 교수팀이 초박막 단결정 실리콘을 플라스틱 기반에 100% 전사(轉寫) 인쇄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팀에는 GIST 박성주 교수, 미국 UIUC(일리노이대 어버너 캠퍼스) 존 로저스 교수 등이 참여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반도체 물질로 잘 알려진 단결정 실리콘은 딱딱하고 부러지기 쉬운 결점이 있지만 초박막 구조를 이용해 플라스틱과 같은 유연한 기판에 전사 인쇄할 경우 마음대로 구부렸다 펼 수 있는(flexible) 전기전자 소자를 개발할 수 있다. /채희중기자 chae@

#### ‘문화나무 상상강좌’ 제2탄 ‘우리소리, 우리음악’

“우리것 이라서가 아니라 국악은 정말 세계적인 자랑거리. 어째서 뛰어난 것인지 하나하나 입증해 드리죠”



- 김명곤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장·전 문화부 장관
- 24일(목요일) 오후 4시 빛고을문화관 4층 다목적홀
- 문의: 062-670-7423, 062-220-0651

光州日報社 · 광주문화재단

## 5·18때 “북 도발 막아달라” 미국이 중국에 협조 요청

#### 외교부 문서 공개

미국은 1980년 5·18 광주민중항쟁 당시 북한이 한국 상황을 오히려 도발하지 않도록 중국에 협조를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미국과 일본 정부가 1980년 사형을 선고받은 김대중 전(前) 대통령의 구명을 위해 한국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으며, 5·18 광주민중항쟁 직후 독일에서 반한(反韓) 시위가 벌어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기사 3면>

외교통상부는 21일 ‘외교부 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외교부령)’에 따라 30년 전 경과한 1980년도 외교문서를 중심으로 총 1300여권(약 18만쪽)의 외교문서를 공개했다.

외교부가 이날 공개한 1980년도 외교문서에 따르면 에드먼드 머스키 당시 미 국무장관은 5월 22일 차이 줘미 중국대사를 초청해 북한이 한국 내 정세를 오히려 모험을 하지 않도록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머스키 장관은 ‘미국은 한미방위조약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조했고, 이 같은 방침을 소련 측에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외교문서는 전했다.

1980년 사형을 선고받은 김 전 대통령과 관련, 미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원회 소속 의원 9명은 1980년 10월3일

전두환 당시 대통령 앞으로 서한을 보내 “만약 김대중이 처형당하면 한미 관계는 파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은 한국 정부가 이 같은 경고를 무시하면 주한 미 대사를 소환하고, 미 수출입은행 차관을 포함한 경제 협력을 유보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역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 한일 정치결탁 의혹으로 여론의 공격을 받자 북한과의 교류 확대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를 압박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5·18 광주민주화운동 직후인 5월 31일 독일개신교협의회(EKD) 소속의 한인 목사들이 주축이 된 반한 시위가 프랑크푸르트 등 독일의 주요 도시에서 열렸다. 시위 참석자들은 주로 광주에 연고가 있는 한인 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 변호사 개업인사

저는 이번엔 광주지방법원 형사단독 판사를 끝으로 법원을 떠나 변호사로 새출발 하게 되었습니다.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 주요학력과 경력 ◆
- 서석고등학교 14회 졸업
- 제36회 사법시험 합격(1994년)
-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졸업(1995년)
- 사법연수원 제26기 수료(1997년)
- 공군법무관
- 광주지방법원 민사합의부 및 형사합소부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형사단독
- 광주고등법원 민사부, 행정부, 형사부
- 광주지방법원 형사단독 판사

### 변호사 김도근 올림

- 업무개시 : 2011. 2. 21. ■ 업무장소 : 광주 동구 지산동 342-26 바른법조타운 2층
- 대표전화 : (062)227-6200, 팩스 : (062)233-0099
- 개업소일 : 2011. 3. 21.(월) 오후 5시부터

## 보해저축은행 고객께 드리는 사죄의 말씀

먼저 금번 사태에 대해 그간 고객 여러분의 사랑 속에서 성장해온 보해저축은행이 여러분의 사랑에 부응치 못하고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는데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보해저축은행은 그간 유동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두 번에 걸쳐 증자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중 1차 135억원의 증자를 지난 해에 완료하였고 2차 320억원의 증자는 지난 2월8일자로 대주주가 중심이 되어 자금납입까지 완료하였으며, 향후 추가 증자를 통하여 보해저축은행을 반드시 정상화시켜드리겠습니다.

금번 사태는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에 따른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되어 빚어진 사태로서 통상의 저축은행 영업정지와는 달리 기존 경영진이 계속적인 자구노력을 할 수 있게 하면서 6개월간 예금 입출만 정지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정상화의 방안은 타행에 비해 훨씬 용이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보해양조(주)를 비롯한 보해의 전 계열·관계사가 보해저축은행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보해저축은행의 예금주는 물론 모든 고객들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도록 빠른 정상화와 조속한 영업재개를 위해 대주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그간의 격려와 협조에 감사 드리오며 재삼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해양조주식회사 대표이사 회장 임 건 우  
보해상호저축은행 은 행 장 오 문 철